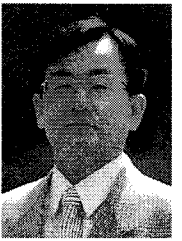




교수동정

【서울캠퍼스】

이광재 교수
학술토론회 개최

이광재 교수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사회과학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의의 문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신정현 (정의)교수=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학술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
△김진일 (의학)교수=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미국 비노기과 학회 참석차 미국 방문
△송지영 (의학)교수=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학회 논문 발표차 캐나다 방문
△장환일 (의학)교수=5월 27일

부터 6월 5일까지, 정신의학회 참석차 캐나다 방문
△이형구 (한의학)교수=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한의사협회 세미나 참석 및 강의차 미국 방문

취업정보

취업정보실로 문의

【서울캠퍼스】

△(주)코리안나 화장품=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580-8550
△(주)인터엠=전산직, 수학과, 0351-60-7111/3
△지코무역=영업직, 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597-3100
△(주)대영건설산업=법대, 512-6293/5
△(주)애경산업=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8181-659
△(주)서울인터내셔널=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636-4812/3
△(주)유먼저산업=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3461-1988
△(주)오투기=영업직, 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0343-21-2118
△(주)삼순=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559-8111
△삼지해운=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779-7488

【수원캠퍼스】

△동서게임채널=15일까지, 3662-8020
△(주)서원산업=건축, 전산, 0331)224-850
△(주)디오지날리빙=관리, 매장, 디자인, 5일까지, 3443-5555
△(주)Kang's & Assoicates=사회학과, 5일까지, 921-8032
△(주)유화증권=상경, 인문, 사회계열, 1일까지, 3770-0151
△(주)남일전자상사=해외영업, 5일까지, 279-6141/4
△YBM 시사유학개발원=6일까지, 273-9671
△(주)대우전자부품=경영, 회계, 전자, 일문, 0343)53-1564
△(주)한신도페츠=해외영업, 7일까지, 754-2891
△(주)한컴교육=835-7355
△(주)현대컴퓨터학원=4일까지, 565-8530/1
△Cellex=마케팅, 영업부문, 8일까지, 588-2155
△(주)한일생명보험=2일까지, 3471-0256
△(주)유로통상=사무직, 인턴사원, 3485-6510
△한국카-엔스=인문, 사회, 이공계열, 5일까지, 563-1270
△(주)제일화재해상보험=법인영업, 영업관리, 12일까지, 552-4012/4
△국민생명=기업금융, 전문영업, 5일까지, 538-3094/5

△(주)코리안나화장품=상경계, 전산, 디자인, 5일까지, 580-8550
△(주)지코무역=화학, 화공, 15일까지, 597-3100
△(주)코리안스테프뱅크=요금관리, 761-5941/5
△(주)인터엠=전자, 전산=4일까지, 0351)60-7111/3
△(주)삼순=정경계, 법정계, 화공, 기계, 5일까지, 669-8111

아프바이트

취업정보실로 문의

【서울캠퍼스】

△동두천시 시민회관=수상 안전요원 (2명), 자격증 소지자, 1일 3시간, 0351-60-2590
△동원증권 서초동 지점=업무 보조 (여1), 월 45만원, 587-0381
△(주)한국날손=가전제품 좌담회, 사례비 1만5천원, 546-5266
장보기 좌담회, 사례비 2만원, 548-8859

등기

등기물 우편실로

※도장, 학생증 지참

【서울캠퍼스】

△철학=서정일 (3) △수학=우성하 (4) △물리=이미라 (2) △화학=김현숙 (4), 이은정 (96) △생물=원성용 (93) △지리=이순호 (4)

알림터 이용안내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마감

알림터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게시판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식이나 알고 싶은 일을 전해 주십시오.
문의 Tel. 02) 961-0095, Fax. 02) 962-7718
Tel. 0331) 201-2056, Fax. 0331) 204-8121

△미술학부=곽아현 (1) △법학=이재현 (2) △신방=한진 (3) △경제=홍영근 (1) △경영=정민교 (3) △언론정보=정재호 (2) △아동주거=김호정 (96) △의상=신해정 (2) △의학=박성재 (본3), 과 대표 (본4), 과 대표 (본3) △한의학=이승주 (3), 학생회 회장 △치의학=김승희 (본1) △무용=권희영 (98) △음대=이보은 (2) △성악=안찬우 (1) △기악=김진희 (3)

【수원캠퍼스】

△행정=임희정 (3), 황상성 (3) △기계=박기현 (4), 최성철 (1), 민봉기 (4) △섬유=조강진 (4), 이창연 (4) △전산=조봉호 (94) △화학=이석진 (3), 이주호 (93) △건축=김두현 (3) △제4공=박일영 (2) △산공=윤성욱 (3) △생명자원=남상근 (1) △애저원=강용태 (107), 변준환 (357)

분실

습득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근색 가방=문리대 뒤편, 015-

8410-9662
△초록색 가방=노천 극장, 015-7748-0221
△남색 가방=노천 극장, 015-225-1758
△검정색 지갑=대운동장 또는 복지회관, 015-7726-5069

【수원캠퍼스】

△밝은 하늘색 이스트팩 가방=5월 28일, 중앙도서관 015-9615-9761

습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순목시계=둘다방
△검정색 지갑=정문앞, 홍주현 (사학 93)
△다이어리=정문앞, 김성훈 (법학 98)

【수원캠퍼스】

△빨간 이스트팩 책가방=중앙도서관, 26일
△청무늬 필통=중앙도서관, 26일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이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힘이 합쳐졌을 때는 불가능한 일까지도 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희대학교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탁자 명단은 접수순입니다. ('98. 4.25 ~ 5.29)

정준수(음악대학 기악과 교수)	3,000,000원
우동희(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3,000,000원
최창수 목사(장위감리교회)	300,000원
김현진(경희대학)	500,000원
이마숙(중앙도서관 개개열람실)	300,000원
최정인(정보처리센터 전산교육지원실)	500,000원
이희영(문리과대학)	500,000원
조인숙(교무처 학적과)	500,000원
이상규(수원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2,000,000원
주석기념품판매조성역(98.5.12 ~ 5.21)	1,345,000원
한의학발전기금	22,320,000원

◀경희사랑자금통장

조용호(학생처장,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20차)	67,190원
전동훈(경영대학원, 경제학과 교수, 2차)	63,900원
이명숙(경희초등학교 교사)	35,000원
익 명	49,530원

개교50주년 기념사업회



잡니다

팝니다

【서울캠퍼스】

△ '미래소크', '제3의 물결' = 1만원선, 015-8449-5531

【수원캠퍼스】

△큰 책상 =016-241-8688
△35인치 드라이브 =012-1134-1358

【서울캠퍼스】

△ '인간행동의 이해' 교재 =1만원, 012-1126-0842
△ '일반 화학' 교재 =가격절충, 015-216-1997
△ '워드 프로세서 2급' =가격절충, 015-8449-5531

학우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버락시장이 '도깨비장터'를 마련했습니다. 사고 싶은 것, 팔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도깨비장터 대자보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PC 통신원

자판위의
성폭력

수갑을 채웁시다!

성폭력의 검은 손은 어디까지 파고 들 것인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지하철에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성폭력 문제가 사이버 공간에도 어김없이 파고들었다. 특히 철저히 보장되는 익명성이라는 장점은 '남의 눈'이 무서워 참고 있던 추한 손들을 자극한다.

지난 달 PC통신 나우누리에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보면 사이버 성폭력이 얼마나

번져있는지 알 수 있다. 총 1,368명의 통신원이 참여한 조사결과 남성의 68%, 여성의 85%가 직·간접적으로 온라인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통신문화를 흐리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최근 PC통신 나우누리에서 토론이 한창이다.

'처음 통신을 시작했을 때는 친구를 사귄수 있어서 좋았는데 일에 답지 못할 응답패설쪽자들이 대화방에서 성적 모

멸감을 주는 사람들로 대화실이 쓰레기장 같다'(ID:samsara2, 초록인형)는 하소연도 있고, '여성은 컴퓨터통신 인구의 20%에 불과한 소수층이기 때문에 온라인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제대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ID:cognate, absinthe)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들도 많다. 뿐만 아니라 통신 초보들을 위해 처음 가입할 때 고발하는 방법을 자세히 전달해야 한다. (ID:프

리즘17), '쪽지를 고발할 수 있는 기능을 첨가한다거나,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ID:whenid)는 등의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얼마 전 국내 4대 통신사들은 최근 늘어나는 성폭력 피해 사태를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의 ID를 영구 중지시키는 제재를 비롯해, 통신이용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성폭력 방

지 알림글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통신사들은 성폭력의 기준을 정확히 하고 전화 신고시 곧바로 철저한 처벌을 행해 여성이용자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다 할 대응없이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 왔던 통신질서가 이와 같은 주의와 처벌로 바로 서야 할 것이다.

〈정수운 기자〉

구분	요일	월(1일)	화(2일)	수(3일)	목(4일)	금(5일)	토(6일)	일(7일)
아침	3층	양식 1,300	양식 1,300	양식 1,300		양식 1,300		콩나물국 1,300
	2층	원정찌개 1,300	해장국 1,300	순두부찌개 1,300		쇠고기찌개 1,300		
점심	3층	생선찌개 1,700	햄박스테이크 1,700	아재소세지밥 1,500		비프스튜 1,700		카레라이스 1,500
	2층	파랑이채밥 1,500	양송이볶음밥 1,500	낙지불고기밥 1,700		해물볶음밥 1,500		우거지갈비밥 1,700
저녁	3층	설렁탕 1,500	오징어채볶음밥 1,500	육개장 1,500		제육볶음밥 1,500		
	2층	콩나물밥 1,300	부대찌개 1,500	닭강정 1,700		안개 1,700		소파게티 1,500
스낵	3층	김치찌개 1,500	소시리스тей크 1,700	미트볼정식 1,700		치킨정식 1,700		오징어떡갈 1,500
	2층	쇠고기찌개 1,700	짜장두부밥 1,500	콩나물다시마탕 1,500		가자파고 1,500		돈육김치찌개 1,300
면류	3층	제육볶음+밥 1,700	떡만두국 1,500	산채비빔밥 1,500		돈육김치찌개 1,300		
	2층	제육볶음+밥 1,700	떡만두국 1,500	산채비빔밥 1,500		돈육김치찌개 1,300		

구분	요일	월(1일)	화(2일)	수(3일)	목(4일)	금(5일)	토(6일)	일(7일)
아침	점심	유부부갯국 1,200	김치콩나물국 1,200	우거지국 1,200		콩나물국 1,200		여목국 1,200
	간편식 I	오징어탕수육 1,500	회덮밥 1,500	돈가스 1,500		후라이드치킨 1,500		부추부섯덮밥 1,500
점심	점심	폴면 1,200	해물스파게티 1,500	쟁반모듬국수 1,500		칼국수+국+김 1,500		쇠고기짜장면 1,300
	저녁	간식사우지국 1,200	호박김치찌개 1,200	된장찌개 1,200		오징어국 1,200		쇠고기국 1,200
저녁	간편식 II	새우볶음밥 1,200	두부볶음밥 1,200	불고기덮밥 1,200		파리파리볶음밥 1,200		
	스낵					우동(1,200), 냉면(1,300), 팔면(1,200), 서리떡(1,300) 김밥, 떡볶이, 샌드위치, 만두튀김(1,000)		

구분	요일	월(1일)	화(2일)	수(3일)	목(4일)	금(5일)	토(6일)	일(7일)
아침	점심	숙음배추찜국 1,200	콩나물김치국 1,200	배찌국 1,300		쇠고기미역국 1,300		
	점심1	열무김치찌개 1,300	부대찌개 1,300	오징어새우찌개 1,300		참치김치찌개 1,300		
점심2	점심	생선찌개 1,500	카레돈가스 1,500	돈육볶음밥 1,500		탕수육볶음 1,500		
	저녁	순두부새우찌개 1,300	김밥 1,300	닭강정 1,300		오징어김치찌개 1,300		
스낵	점심	소세지떡볶음밥 1,300	삼선짜장밥 1,300	게장볶음밥 1,300		떡볶이 900		
	저녁	떡볶이 900	아재떡볶이 900	후라이드치킨 900		떡볶이 900		
면류	점심	쟁반국수 1,500	폴면 1,200	양송이스파게티 1,300		냉면국수 1,300		
	저녁							

1998학년도 후기(야간)모집

브랜딩 전략 전공

- 설립배경**
 - 브랜딩전략이 경영전략의 핵심과제로 급부상하고 있음
 - 브랜드 이론체계 구축과 브랜딩전략 전문과 수요 폭증
 - 세계 최대 브랜딩전략 컨설팅 그룹인 Interbrand Group(www.interbrand.com)과 제휴, 국내최초로 본전공을 개설함
- 핵심강의 내용**
 - 브랜드 관리론(Brand Management)
 - 브랜드 가치평가(Brand Valuation)
 - 브랜드 네이밍 전략(Brand Naming strategy)
 - 브랜딩 전략(Branding Strategy)
- 모집과정 및 자격**
 - *석사학위과정(2년6개월): 4년제 대학졸업자(8월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자격자, 외국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 *브랜딩전략 전문과 과정(1년): 석사학위 과정에 준함
- 전형방법**: 영어, 서류심사, 면접
-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98.6.1(월)~6.8(월) 17:00
 - 전형일: 98.6.13(토) 14:00
- 특전**
 - 브랜딩전략전문과과정 수료생에게는 "브랜딩전략전문과과정 수료증"을 수여하고 학위과정으로 전환시 취득학점 인정을 통한 조기졸업 가능함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02)961-9146, 961-0126~8

□ 이번 주 주제 - 실업문제와 노·사·정 갈등



희생이 아닌 배려의 돌파구 마련되어야

4월 공식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6.7%, 실업자 수는 140만 명을 넘어섰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는 대량 실업사태에 빠져들고 있다. 지하철역과 무료 급식소에 넘쳐나는 실직자들과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27일 시작된 민주노총의 '〈시한부〉파업'을 두고 언론은 일제히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고 단정적으로 보도·논평하고 있다. IMF라는 용어가 익숙해지고, 경제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국가적 배반행위로 매도되어 가고 있다.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유일 명제 아래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실업의 문제에 관하여 기업은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용조정 이후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기업활동의 정상화와 더불어 고용의 재확대를 위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명제가 말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은 직장을 떠나 고통의 시간으로 향하는 실직자들이 납득할 만한 자기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리하고 등의 대량해고는 구조조정의 최후 수단이며, 그 최후까지도 하고 회피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해고와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의 모든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의 횡포는 그들이 노동자들의 지친 허리와 어깨를 굽고 현실의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의도를 명

확히 드러낸다. 정부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업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가동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또한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실업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생색내기 위해 그치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 수 조원의 액수가 거론되는 실업대책 등 유관한 이벤트성 행사들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도둑질 하려는 것이다.

최근의 언론 보도는 거리로 뛰쳐나온 노동자들을 이기적이고 한심한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거리로 내

몰고 다시금 파업이라는 수단을 택하게 한 것은 다른 아닌 스스로의 할 일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노동자와 국민의 고통만을 강요하는 기업과 정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

총체적인 혼란 속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살길만을 찾는다면, 혼란의 광풍함은 더욱 깊어지고 그 끝 또한 기약할 수 없게 된다.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대량실업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우리는 슬기롭게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권력과 자본에 의한 어떠한 횡포와 기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 호 기
(사회대 경영 92)

□ 독자투고

에리직톤의 후예들이여,
자연과괴없는 복지를 바란다

학교에서 정문 쪽으로 내려가는 원원 보도 위에 굵은 나뭇가지가 하나 드리워져 있었다. 일찍이 이래 그 나무에 이마를 두 번 부딪쳤고 그 가지에 얽힌 농담을 알고 있다. 각각의 농담은 우리 과 92, 94학년 선배들, 다른 과의 한 학생과 그 가지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언제부터인가 아무리 정신을 놓고 걸어도 그 가지가 드리워진 부근에 이르면, 내 몸이 나무의 존재를 느끼고 이마를 지키려 피해 걷게 되었다. 지난 총학생회의 회장단 선거 때 한 팀이 내건 공약 중에 묘한 것이 있었다. 이마를 위협하는 그 가지를 번을 찍어야할 만큼 오래 자라는 정목으로 여신이야기는 정목이 갖는 나무를 베었다가 형벌을 받아, 끝없는 배고픔에 시달려 제 몸을 뜯어먹다 죽은 에리직톤의 신화가 생각났다.

얼마전 그 가지가 은색 스폰지로

싸인 것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그래, 화해할 방법을 찾아냈구나 싶어 호뭇한 마음에 웃 입은 가지들 한 번 안아 보기도 했다. 나뭇가지를 잃을 염려는 이제 접어둔다고 믿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가지가 잘려나갔다는 말을 듣고 비명을 질렀다. 강의 발로 가는 길에, 예전에 가지가 드리워 있던 곳을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나는 위치를 찾지 못하고 그 부근에서 서서 오랫동안 여러동돌 해 왔다. 결국, 어학원 광고인지 대동제 안내인지 플랭카드 뒤에 가려진, 나무 밑동에 난 가지 베인 자국을 보고 믿었다.

잘려진 나뭇가지는 어디로 갔을 까. 정문 옆에 세워진 솟대로나 쓰였어야 할텐데, 휘었다고 여단가에 버려져 말라빠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 보행자 복지를 위해 학교이나 총학생회가 배려해 주시었는지. 이 보행자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이 무정한 사람들이, 그도 봄이든 눈부시게 빛날 뉘우리는 아름다운 가지였던 말이다.

김 유 리
(문리대 영문 96)